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4

▶ **45회 예고**
아쇼까를 만난 데비는 아들을 낳는다. 아쇼까는 며칠 전에 아들이면 마핸드라(마힌다), 딸을 낳으면 상가미트라(상가밋따)라고 지어 놓았을 만큼 데비의 출산을 기뻐한다. 마핸드라는 마하와 인드라의 합성어로 데비도 아주 좋아한다.



다르마, 아쇼까가 돌아오길 원하다

담마팔 사문은 꾸날라를 데리고 강가강으로 나갔다. 다르마 왕비 별궁에서만 꾸날라를 가르치다가 최근에는 강가강 강변으로 내려가서 수업했다. 강변에서는 브라흐민들이 강물을 몸에 끼얹으며 기도하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은 꾸날라와 함께 사람들이 없고 아침햇볕이 잘 드는 한적한 강변으로 갔다. 자라 서너 마리가 강변 모래밭까지 올라와 몸을 말리고 있다가 꾸날라를 보더니 강물 속으로 달아났다. 꾸날라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자라는 왜 사람을 보고 도망칩니까?"

"사람들이 자라를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손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자라탕을 한 번이라도 먹었거나."

자라 두 마리가 강변으로 다시 올라왔다. 담마팔 사문이 자라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도 자라는 도망치지 않고 긴 목을 내밀면서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자라는 자신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꾸날라가 도망치지 않는 자라들을 보고 신기해했다. 담마팔 사문이 덤덤하게 말했다.

"저 자라를 잡아먹는다면 자라가 원수로 환생해서 복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날라가 자세를 낮추고 엉금엉금 기어갔지만 자라는 또 강물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담마팔 사문이 좌선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꾸날라도 옆에 앉아 담마팔 사문을 흉내했다. 담마팔 사문은 언제나 좌선한 뒤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은 질문을 유도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침햇살이지만 목덜미가 금세 따가웠다. 담마팔 사문은 좌선을 짧게 하고 끝냈다. 부드러운 강바람을 느끼면서 담마팔 사문이 먼저 일어났다. 잠시 후 꾸날라가 담마팔 사문에게 물었다.

"사문이시여, 브라흐민들은 왜 아침마다 강가강에서 목욕을 합니까?"

"목욕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물에 들어가면 거짓말한 죄가 씻어질까요?"

담마팔 사문이 꾸날라에게 되물었다.

"그럴까요?"

"사문이시여,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꾸날라 왕손님, 사문은 고타마 붓다께서 브라흐민과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담마팔 사문이 붓다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꺼냈다. 꾸날라는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햇살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지만 강가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견딜 만했다. 강바람에 꾸날라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갈대 잎처럼 나풀나풀 날렸다.

고타마 붓다께서 꼬살라국 순다리까강 주변의 작은 숲속에 머물 때였다. 깊지 않은 순다리까강은 강가강의 한 지류였다. 어느 날 강변 움막에 사는 한 늙은 브라흐민이 붓다를 찾아왔다. 그 무렵의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므로 브라흐민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다.

늙은 브라흐민은 고타마 붓다에게 다가와 자기와 함께 순다리까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자고 권유했다. 붓다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에게 물었다.

"브라흐민이여, 강에서 목욕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소?"

그러자 브라흐민이 대답했다.

"고타마 붓다여, 순다리까강은 구원의 강이요, 상서로운 강입니다. 만약 누구나 여기서 목욕하면 모든 죄업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에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하여 늙은 브라흐민을 놀라게 했다.

"어떤 강물도 사람의 죄업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강물에 목욕을 해서 죄업이 사라진다면 그 강물 속의 물고기는 죄업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물고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소. 죄업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오직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 것이며,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 것이며,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물물에 목욕해도 깨끗할 터이므로 굳이 강에 들어가 목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행을 닦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주 강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해도 죄업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브라흐민은 차분하게 설득하는 붓다에게 감동했다. 강물과 물고기의 비유에 브라흐민은 붓다를 찬탄하면서 재가제자가 되었다. 브라흐민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청정한 행위만이 죄업을 닦아준다는 것을 깨닫고 붓다께 귀의한 것이었다.

담마팔 사문이 고타마 붓다와 브라흐민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꾸날라에게 물었다.

"꾸날라 왕손님, 이제 왕손님은 강물에 목욕을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청정한 행을 닦아서 마음이 청정해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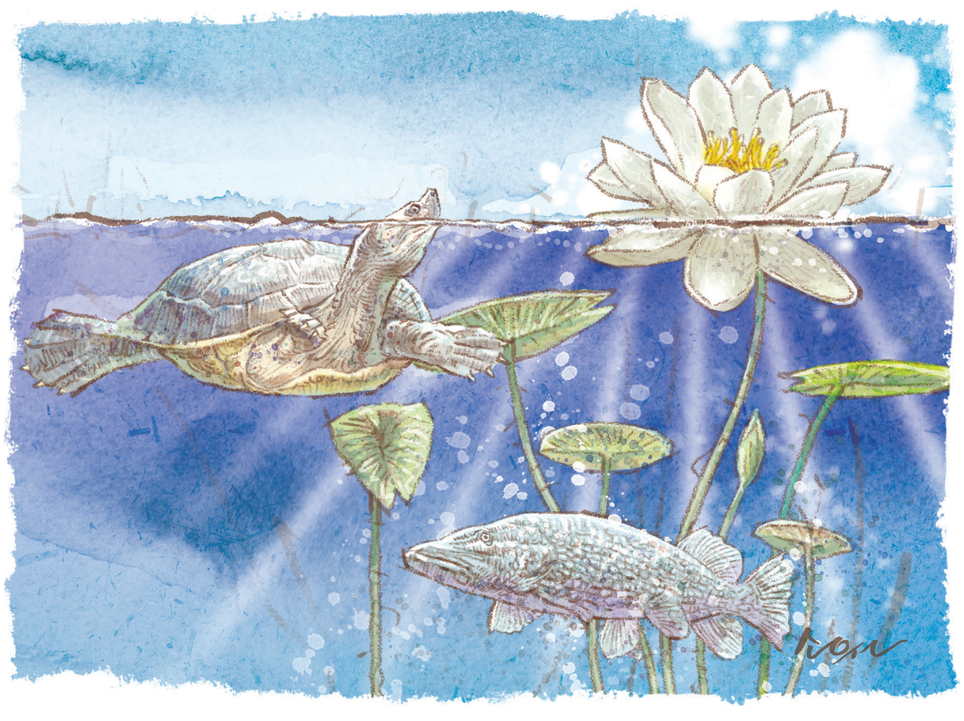
"강물에 목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다르마 할머니와 아상디밋따 작은어머니께서 강물에 목욕하는 날이거든요. 오시면 제가 못하게 하겠어요."

"하하하. 한 번 그렇게 해보세요."

꾸날라의 말대로 궁중의 왕실 가족들이 강가강 강물에 몸을 적시는 날이었다. 그들 모두 브라흐민이기 때문에 오래 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왕실 가족들이 강물에 목욕하는 날이 되면 강가강 강변은 군사들이 경계를 서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저녁에는 제관들이 강가강 시바신과 불의 신인 아그니를 위해 뿌자를 치렀다.



아무튼 꾸날라가 담마팔 사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아주 빨랐다. 산스크리트어 기초는 이미 끝났고, 담마팔이 가르칠 수 없는 승마나 검술 등을 배울 수 있을 정도였다. 꾸날라 자신도 왕손으로서 무술을 배우고 싶어 했다. 꾸날라가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 얘기인데요, 아버지는 무술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승마나 검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기도 하구요."

꾸날라의 큰 눈이 슬프게 변했다. 어머니 빠드바마띠나 아버지 아쇼까의 얼굴이 가물가물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빠드바마띠는 꾸날라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죽었고, 아버지 아쇼까는 꾸날라가 자라는 동안 탁실라와 웃자인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왕비님께 아쇼까 부왕님이 보고 싶다고 말씀해 보았습니까?"

"가끔 했어요. 할아버지 대왕님께 말씀해 본다고 하셨어요."

"왕손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마팔 사문은 문득 라다굽따의 부탁이 떠올랐다. 수년 안에 아쇼까 부왕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르마 왕비를 설득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담마팔 자신이 다르마 왕비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꾸날라가 성장하면서 차츰 그 일이 풀리고 있다고 예견했다. 꾸날라가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께서 말씀했어요. 사문께서는 미래의 일을 보시는 분이라구요."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알고 싶어요."

"왕손님,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반드시 빠딸리뿌뜨라에 오실 것입니다."

"아, 다르마 할머니께서 이쪽으로 오시고 있어요!"

꾸날라가 소리쳤다.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밋사도 담마팔 사문이 있는 강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비가따쇼까는 락슈미밋사가 안고 있었다. 담마팔 사문이 다르마 왕비에게 다가가 합장했다.

"왕비님이시여, 산책을 나오셨습니까?"

"목욕하러 왔지요, 오늘이 강물에 목욕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담마팔 사문은 락슈미밋사에게 다가가 비가따쇼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축원해주었다. 자애롭고 지혜로운 왕자가 되라는 축원이었다. 다르마 왕비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문이시여, 이곳에 오랫동안 계시어 꾸날라뿐만 아니라 비가따쇼까의 스승도 되어주세요."

"소승을 인정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왕실 가족 중에 여인들 일부는 벌써부터 강가강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두 손으로 강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다가 사리를 걸친 채 몸을 풍덩 강물 속으로 담그기도 했다. 어린 왕자들은 푸우푸우 자맥질하며 물장구를 쳤다. 꾸날라가 도리질을 하며 다르마 왕비에게 말했다.

"할머니께서도 목욕하실 거예요?"

"그럼, 죄업을 씻어야 다음 생에는 극락에 태어난단다."

"극락은 어떤 곳인데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란다. 천녀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1년 내내 연꽃이 피어 있는 향기로운 곳이란다."

꾸날라는 담마팔 사문이 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도리질했다. 다르마 왕비와 담마팔 사문의 말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꾸날라는 스승이 된 담마팔 사문의 말을 믿었다.

"할머니, 강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시키더냐?"

"강물에 죄업이 사라진다면 물고기들은 죄업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너는 죄업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업을 깨끗이 하고 싶다면 오직 청정한 행을 닦으라고 했어요."

다르마 왕비가 담마팔 사문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르마 왕비가 담마팔 사문에게 미안해하며 말했다.

"사문이시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꾸날라가 버릇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군요."

"왕비님, 꾸날라 왕손님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쇼까 부왕을 빨리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지요."

"꾸날라 왕손님은 소승이 가르친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오, 사문은 브라흐민들과 달리 죄업을 씻는다는 말이군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소승이 말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르마 왕비는 더 이상 꾸날라를 꾸짖지 못했다. 꾸날라가 스승 담마팔 사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르마 왕비는 머쓱해하며 화제를 돌렸다.

"비가따쇼까를 위해서도 아쇼까 부왕을 빠딸리뿌뜨라로 오게 해야겠어요. 아쇼까는 그동안 대왕을 위해서 헌신해왔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동생을 돌보고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대왕님도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요."

다르마 왕비는 마음속의 말을 담마팔 사문에게 하소연하듯 다 고백했다.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가 반드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르마 왕비는 물론이고 아상디밋따, 꾸날라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었다.〈계속〉





